

귀의삼보하옵고,

2016년 1월 10일

2016년 새해 귀택에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야납이 보광사 주지로 취임한 후 신도 여러분들의 성심 성의로 작년 한해를 원만히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던 네팔국민을 위한 모금 운동이라거나 보광사의 숙원이었던 데크 공사 등 조그마한 일들이었지만 다 함께 아무런 불평없이 힘을 합해 주신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2월 8일 설날을 기해 보광사에서 조상차례를 2월 7일 첫째 일요일 합동으로 모시려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그동안 소홀히 하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 명절을 다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인 만큼 가능하면 한복을 착용하셔서 제대로 된 명절을 지내도록 합시다. 이국에서나마 우리문화를 우리가 지키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여 집안의 자제분들은 물론 이웃의 한인 아이들 혹은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합동차례 후 명절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 윗놀이를 위시해 명절에 즐길 수 있는 갖가지 놀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놀이에는 보광사에서 상품을 준비하여 명절의 분위기를 한껏 살리려 하오니 상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동안 솜씨를 연마해 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 신도님들께서 상품으로 기증할 물품이 있으시면 2월 7일 이전까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사에서는 어떠한 상품이건 기꺼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월 21일 정월대보름(2월 22일) 법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오곡밥으로 우리의 절기를 이곳 보광사에서 재현해 보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5색 나물과 5곡밥으로 한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를 몸소 체험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공 합장

